

성경 공부

3월 1일 교훈

두 가지 큰 계명

핵심 구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것을 알고 예수께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오니이까?”

마가복음 12:28

선별된 성경 구절:

마가복음 12:28-34

오늘의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맞닥뜨리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고 물었습니다(마가복음 11:27,28). 이에 예수님은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그 비유에서 악한 관리자들은 땅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 위에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자들임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서 빼앗겨 열매 맺는 백성에게로 옮겨질 것이다." 마태복음 21:43

이에 분노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여러 질문으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고 묻자, 스승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13-17). 사두개인들은 이어서 일곱 형제()가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들의 나라에서는 그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다." (마가복음 12:24)

예수님의 답변에 감명받은 한 "서기관"이 아마도 진심으로 본문의 핵심 구절에 기록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29,30). 신명기 6:4,5을 직접 인용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도록 포괄적인가!

예수님은 서기관이 묻는 질문을 넘어,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31). 여기서도 예수님은 구약성경(레위기 19:18)을 인용하셨습니다. 얼마나 적은 말로 많은 것을 말씀하셨는지! 성경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이는 그의 피조물들의 복지를 위한 섭리로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들에게 그 사랑에 보답하라고 권면하시며, 창조주와 이웃을 대하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기준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은 공자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즉 남에게 해주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대조적인가! 하나는 단순히 부정적인 진술에 불과한 반면(),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진술이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실제로 하나님의 법에는 신성한 것임을 증명하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두 위대한 법을 지키고자 할 수 있고 기꺼이 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각자는 온 마음과 영혼으로 하늘 아버지를 사랑할 것입니다. 모두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섬기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낙원일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때 세상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